도시 전체가 예술인 나라

헝가리 부다페스트

유럽 여행에는 '즐거운 불편함'이 있다. 고단한 여행길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은 큰 선물로 다가와 가슴을 설레게 한다. 10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그랬다. 좁은 공항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야 했고 공항을 겨우 빠져나갔을 때는 캐리어의 천적인 벽돌바닥이 반겨주었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가슴에 남았다.

글·사진 대외홍보팀 신희진 사원

숙소에서 바라본 성이슈트반 대성당

성이슈트반대성당 입구에 쓰인 문구 'Ego Sum Via Veritas Et Vita'는 '나는 길이자, 진리요, 생명이다'라는 뜻으로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다. 11월 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당의 내·외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. 그곳은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답게 따뜻하면서도 웅장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.

크리스마스 마켓축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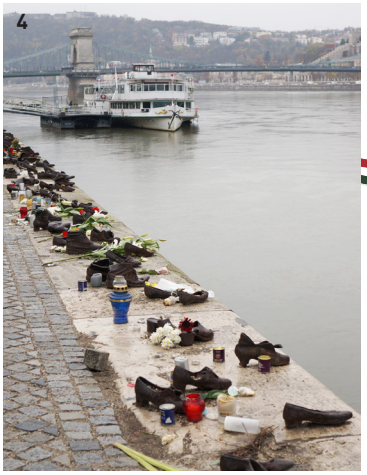
헝가리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요 도시에서 야외 플리마켓(Flea Market)과 축제를 펼친다. 운 좋게도 기간이 잘 맞아 가는 곳마다 축제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, 헝가리 전통춤과 다양한 수공예품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.

어부의 요새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

어부의 요새

'부다페스트하면 야경,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어부의 요새*'다. 해가 지기 직전 오후 3시쯤 도착한 어부의 요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. 어둠이 내리고 모인 사람들 모두가 매 순간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그곳의 신비로움을 말없이 바라보았다.

*1899~1905년에 지어진 건물로 헝가리 애국정신의 상징이다. 19세기 시민군이 왕궁을 지킬 때 도나우강 어부들이 강을 건너 기습하는 적을 막기 위해 요새를 방어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.



초겨울의 동유럽은 해가 짧아서 오후 4시가 되면 어두워진다. 해가 지기 전까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나는 이른 아침부터 돌아다녔다. 도시가 작아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는데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본 부다페스트는 비가 와도 아름다웠다.

부다(BUDA)와 페스트(PEST)를 연결하는 철교인 '세체니 다리'를 건너면 근처에 전시된 '다뉴브 강의 신발들'을 구경할 수 있다. 실제 신발은 아니었지만 강가에서 학살된 유대인의 슬픔에 대해 잠시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.

1___비오는 부다페스트
2___강가에서 본 국회의사당
3___세체니다리 입구
4___다뉴브강가의 신발들

1___부다페스트 야경
2___센텐드레역
3___다채로운 센텐드레
4___센텐드레 마을
5___크리스마스 박물관 내부
6___트리 장식품들

부다페스트의 숨 막히는 야경도 좋았지만 근교 '센텐드레(Szentendre)' 마을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아직까지 선명히 기억에 남아있다. 부다페스트 데악(Deák)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기차로 갈아탄 뒤 1시간 정도 가면 센텐드레에 이른다. 예술가 마을인 만큼 골목마다 다양한 색의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.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박물관은 마을의 가장 큰 볼거리이자 자랑이었다. 집에 트리가 없는데도 알록달록한 장식품과 산타 모형들이 너무 귀여워서 잔뜩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.

협회에 입사한 뒤 처음 떠난 여행후기를 〈산업보건〉에 실을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. 앞으로도 여행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소개하며 많은 직원들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다.